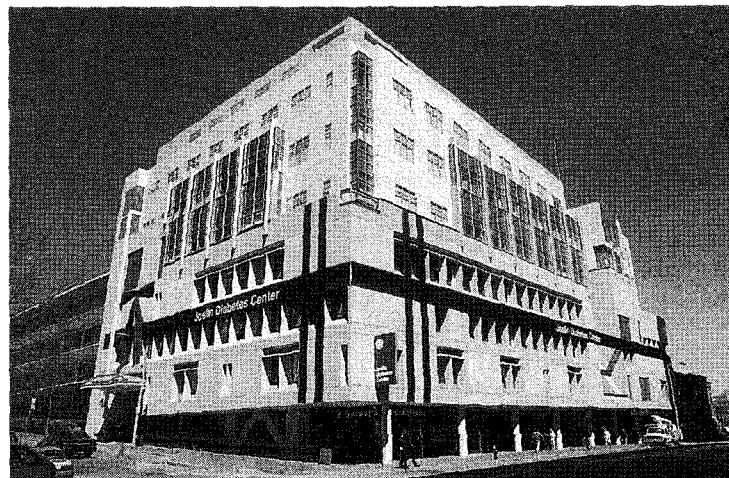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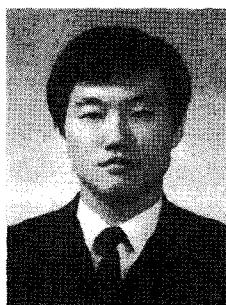


조슬린 당뇨병센터의 의료부문 활동

철저하고 개별적인 치료법의 적용을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실시



조슬린 당뇨병 센터의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당뇨병 환자의 안질환을 위한 안과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 특수 클리닉으로 당뇨병 임산부 클리닉, 성기능 장애 클리닉, 신장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인 규
계명의대 동산의료원 내과

최근 조슬린 당뇨병 센터에서 환자들에
게 보내는 안내책자를 보면 “당신이
수년간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방금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바로 지금이 당신이 조슬린
당뇨병 센터를 방문해야 할 가장 좋은 때입니
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가 “나의 당뇨병 상태
는 괜찮은 편이고 아직은 조슬린 당뇨병 센
터에 갈만큼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면 조슬린 당뇨병 센터의 의사는 “만약 지금
당신이 당뇨병 치료를 위해 조슬린에 온다면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당뇨병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충고하고 있다.

당뇨병의 획기적인 치료약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슐린이 발견되기 훨씬 전인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전 1898년 미국 보스턴의 Elliott P. Joslin이란 의사는 당뇨병 환자의 진료를 위한 최초의 당뇨병 진료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조슬린 당뇨병 센터는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학의 당뇨병 진료센터로, 94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간예산이 4천만불(약 300억원)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당뇨병 진료 및 연구센터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1980년 이후 조슬린 당뇨병 센터는 보스턴 주변의 큰병원에 당뇨병 진료실 분원을 설치하여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환자도 진료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돋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10개 정도의 분원(Affiliated Diabetes Center)을 두고 있다.

조슬린 당뇨병 센터의 구성

조슬린 당뇨병 센터는 당뇨병 치료방법의 개발과 실제적인 치료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진료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에도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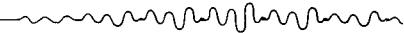
진료센터의 원장은 Edward S. Horton이며 연구센터의 원장은 Ronald C. Kahn이다. 진료센터에는 당뇨 및 내분비 분과에 29명, 안과에 10명, 정신과에 3명, 소아내분비 분과에 4명, 신장분과에 7명, 당뇨병 밸(Diabetes Food) 진료분과에 5명 등 총 58명의 전문의와 10명 정도의 임상연구원(Clinical Fellow), 10여명의 간호사 및 영양사가 일하고 있다.

연구센터에는 세포 및 분자생리분과(Section on Cellular & Molecular Physiology)에 4명, 임상생리분과(Section on Clinical Physiology)에 4명, 임상연구분과(Section on Clinical Research)에 9명, 역학 및 유전연구분과(Section on Epidemiology and Genetics)에 3명, 안과연구분과(Section on Eye Research)에 3명, 당단백 및 생체막 연구분과(Section on Glycoprotein and Biomembranes)에 2명, 면역 및 면역유전 연구분과(Section on Immunology and Immunogenetics)에 3명, 체도이식 및 세포 생물학 분과(Section on Islet transplantation and Cell Biology)에 4명, 대사분과(Section on Metabolism)에 3명, 분자생물학 분과(Section on Molecular Biology)에 2명, 신장분과(Section on Nephrology)에 3명, 혈관세포생물학분과에 2명 등 약 40여명의 전임연구원 및 각 분과에 3~4명 이상의 박사후 연구원(Post Doc. Fellow) 등 총 100명 이상의 연구원이 일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의사 및 연구원의 노력으로 조슬린 당뇨병 센터는 당뇨병의 원인, 치료방법에 대한 많은 유익한 보고를 하였으며, 향후 보다 나은 치료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조슬린 당뇨병 센터의 환자진료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당뇨병 의사가 참여하여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조절이 당뇨병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을 10년 동안 관



찰하여 지난해 보고한 DCCT(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 Trial; 당뇨병 혈당조절과 합병증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혈당조절을 철저하게 하였을 경우는 당뇨병의 눈의 합병증을 76%, 신장합병증은 50% 정도, 신장합병증은 6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당조절을 이와같이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자가혈당검사, 식사요법, 운동요법이 필요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조절이 잘 안되는 당뇨병 환자는 약물요법을 병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방법은 환자 개개인마다 심한 차이를 보이므로 보다 철저하고 개별적인 치료법의 적용이 꼭 필요하다.

조슬린 당뇨병 센터에서는 약 30~40명의 입원환자와 일일 150명 전후의 외래환자를 위하여 60~70명의 당뇨병 전문의, 안과, 정신과 전문의, 당뇨교육 전문 간호사, 영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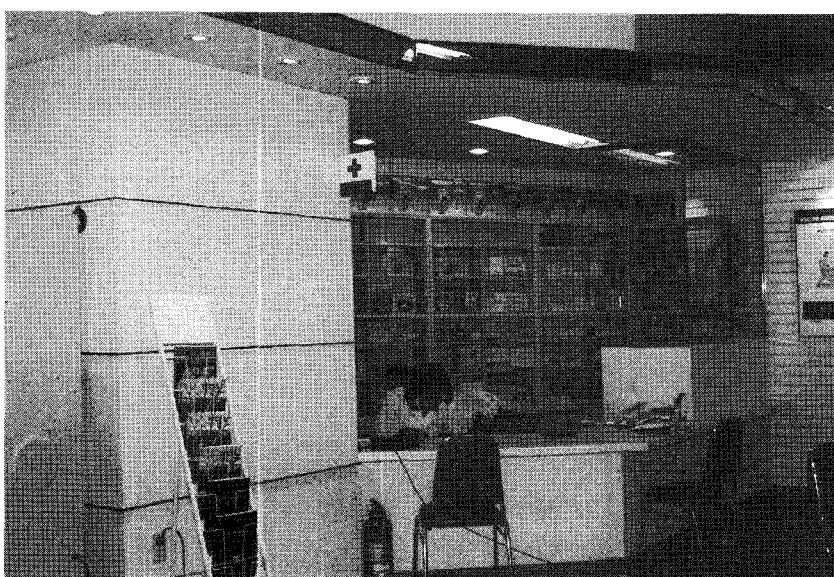
및 운동요법 전문가 등 많은 인원이 개별적으로 혹은 팀을 구성하여 노력하고 있다.

당뇨교육 전문 간호사가 가정에서의 혈당조절법, 아플 때 혈당조절법, 저혈당 처치법, 시간대가 다른 외국 여행시의 혈당조절법, 인슐린 펌프 사용법, 인슐린 주사시의 주의법 등을 개별적 혹은 집단 교육을 통하여 철저하게 교육하고, 전문영양사가 환자의 생활방식에 기초를 둔 식사처방, 합병증의 유무에 따른 식사처방을 해주며, 운동요법 치료사가 환자 개별적인 운동요법의 처방과 이의 시행유무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

그 외에도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여 심한 비만증 환자에게 16주간의 특별한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의 치료를 위한 정신과 전문의 치료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당뇨병 환자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명절 때의 음식

먹는 방법, 슈퍼마켓 이용법, 여행시 주의점 등 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조슬린 당뇨병 센터의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당뇨병 환자의 안질환을 위한 안과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 특수





클리닉으로 당뇨병 임산부 클리닉, 성기능 장애 클리닉, 신장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2월부터 이곳의 혈관합병증 연구실에서 앞으로 1년간 연수중에 있으며 현재 이곳에는 필자 외에도 서울의대에서 내과 수련을 마치고 미국 NIH에서 연수한 박도준 선생을 비록하여 2~3명의 한국인 의사 박사후 연구원이 있다.

그리고 가끔 이곳에서 치료받기 원하는 한

국인 환자가 입원하기도 하는데 필자의 소견으로는 언어장애로 환자교육시간에 충분한 이해가 힘들고, 음식이 한국과는 많이 달라서 식사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실제로 많은 당뇨병 환자가 있는 국내에서도 이와같은 당뇨병 연구 및 치료 전문기관인 당뇨정보센터도 향후 발전의 틀로써 조슬린 당뇨병센터의 연구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뇨인 식사요법 가이드〉 책자 발간 판매



당뇨정보센터는 최근 당뇨인을 위한 첫번째 당뇨정보시리즈로 〈당뇨인 식사요법 가이드〉를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당뇨인 식사요법 가이드〉는 기존의 일반인용 식품교환표를 당뇨인에게 맞게 보완한 것으로 당뇨인은 왜 식사요법이 중요한가와 식사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 등을 기본으로 해 식품교환표를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등으로 나누어 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당뇨병 관리에 특히 도움이 되도록 간식 및 인스턴트 식품의 열량을 종류별로 나열했으며 외식과 일품요리의 열량도 나타냈다.

이밖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병원의 당뇨교실 현황을 소개하면서 상담영양사를 표기해 당뇨교실을 찾는 당뇨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당뇨인의 혈당관리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식사요법인 만큼 〈당뇨인 식사요법 가이드〉는 당뇨인의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뇨인 식사요법 가이드〉는 당뇨정보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한권에 3천원이다.

■ 문의 : 745-2421/3, 747-6253, 743-9482/3, ■ FAX:745-0349